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한국교통연구원 녹색 자동차보험제 도입 방안 추진

-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6일 개최한 ‘POST-201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교통전략 실천방안’ 세미나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‘녹색 자동차보험제’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.
 - 현행 국내 자동차 보험료는 주행거리와 운행일 등 이용특성을 고려않고 산정하고 있으며, 자동차의 과다 운행을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함.
 - 이에 반해 프랑스, 영국,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덧붙임.
- 녹색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현행 의무보험료인 책임보험료와 주행거리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주행보험료로 나뉘서 각각 책정할 것을 권고함.
 -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은 주행거리에 맞춰 보험료가 책정되고 주말만 이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말전용 자동차 보험료는 이보다 낮게 책정하자는 것임.
 - 외국의 경우 자동차 주행거리 정보 파악에 필요한 GPS 칩 등과 같은 장치는 보험회사가 무료로 제공(프랑스, 영국)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구입(미국의 경우 대당 30달러)하고 있음.
- 주행거리 연동 및 주말전용 자동차보험이 도입되면 연간 각각 2조 500억원과 4조 4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임.
 - 또한 자동차 1대당 연간 유류비는 각각 60만원과 132만원이 절약되고, 보험료는 각각 19만원과 45만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.
 - 녹색 자동차보험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.6%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 중 43.3%는 주행거리 연동 상품에, 49.3%는 주말 전용 상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(Post-201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교통전략 실천방안, 한국교통연구원 녹색성장실천연구본부, 1/26)